

광주 서구, 가족·이웃 캠크닉 큰 호응



2026년 제5회 동천동 다독다독 캠크닉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동천동 주민자치회·복지관 협력해 소통·화합의 장 마련 '다독다독 책마을' 기반 따뜻한 마을공동체 조성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잇는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서구는 19일 대자중학교 강당에서 동천동 주민자치회와 월드비전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제5회 다독다독 캠크닉'을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다독다독 캠크닉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대표 주민참여 사업이다. 올해까지 총 62가정 208명이 참여하며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동천동 대표 공동체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마을'을 주제로 7가정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탄소

중립 체험, 캠핑 다이닝, 체육대회, 가족 편지 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족 편지 낭독 시간에는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며 가족 간 정을 되새겼다.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웃 간 관계를 넓히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재 동천동 주민자치회장은 "올해는 이웃 간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와 가족의 마음을 나누는 편지 낭독회가 함께 열려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행사를 위해 정성

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유광진 동천동장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이 마을의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행복한 동천동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천동은 마을 BI(Brand Identity)인 '다독다독 책마을'을 바탕으로 책과 교육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역 신생아 가정에 책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애 첫 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전국 유일 동 단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독서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가영 기자

북구, 광주 유일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우수기관 선정

지역 맞춤형 한의약 건강돌봄 3년 연속 장관상 수상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21일 북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주관한 '한의약 건강돌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의약을 지역 돌봄 사업에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지자체를 선발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전

국 지자체가 추진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 실적을 ▲사업 적정성 ▲서비스 제공 수준 ▲타 사업 연계 실적 ▲전국 확산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지난해 북구는 지역한의사회와 구축된 네트워크를 가동해 총 32,000여 명이 넘는 돌봄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 진료, 약물 처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경로당, 장애인 거주시설,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맞춤형 거점 이동 진료소를 운영해 어디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호평받았다. 또한 기존까지 고령자 중심으로 진행됐던 사업 내용을 아동, 청소년, 다자녀가구 등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장한 점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북구 한의사회, LH광주전남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타 지원사업과 연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북구는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주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어디서든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가 추진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3년 연속 성과를 이어갔다. 북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주관한 '한의약 건강돌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의약을 지역 돌봄 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사업 적정성, 서비스 제공 수준, 타 사업 연계 실적, 전국 확산 가능성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3만 2천여 명의 돌봄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진료와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재섭 기자



한의약 건강돌봄 우수기관 선정 기념촬영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